하물며 너희일까보냐 | 마태복음 6:30-34 주일 설교 묵상 (2026.8.30)

[설교 요약]

필요에 대한 염려를 하는 우리의 문제는 단순히 그 필요한 것이 부족한 데 있지 않고,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시며 약속으로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관계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성도도 이방인처럼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나 비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탕자가 굶주림 가운데서도 먼저 아버지를 부르며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가장 좋은 옷과 잔치를 거저 베풀었던 것처럼, 우리의 몫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계심을 기억하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나눔]

1.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아신다고 하시면서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과, 그 필요를 염려하며 반복해서 구하는 것은 어떻게 다를까요?

2.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조건’으로 받아들인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조차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면, 나는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어떻게 돌아볼 수 있을까요?

3. 설교에서는 “우리는 구하는 자이고, 하나님은 더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재정, 건강, 직장, 자녀와 같은 현실적인 필요가 있을 때,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더하시는 일은 아버지께 맡기고 나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실제 기도와 삶에서 어떤 모습일까요?